

嵌字 雜體詩 小考

김 성 수*

<目 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V. 嵌字 雜體詩의 창작 특징 |
| II. 嵌字 雜體詩의 의미 | VI. 嵌字 雜體詩의 발전 변화 |
| III. 嵌字 雜體詩의 종류 | VII. 나가는 말 |
| IV. 嵌字 雜體詩의 내용 | |

I. 들어가는 말

雜體詩는 正體詩의 상대적인 말이다. 정체시는 역대로 詩歌 변천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대별로 正宗의 체제나 격식을 이루어 보편적인 인정을 받은 詩體라고 볼 수 있다.¹⁾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4言의 《詩經》, 長短句로 이루어진 《楚辭》, 漢代의 樂府, 魏晉南北朝 이후의 5言·7言 古詩 등이 모두 정체시에 속한다. 또 格律이 이루어진 후 絶句, 律詩, 排律 등도 여기에 속한다. 즉, 정체시는 시를 지을 때 일반적으로 규정해 놓은 형식적인 표준 내지 규범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잡체시는 무엇을 말하는가? 잡체시의 연원을 통해 그 개념을 살펴보기로 하자.

‘雜體詩’라는 말은 齊梁 시기에 처음 나타났다. 《文選》의 雜擬類에 〈雜體詩序〉와 江淹의 〈雜體詩三十首〉가 있고, 王融의 〈雜體報通直詩〉와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李鵬, 〈趙翼眼中的雜體詩: 詩歌裏的創體〉, 《文史知識》, 第10期, 2003, 참조.

蕭綱의 〈傷離雜體詩〉에도 보인다. 그밖에 《文心雕龍·定勢》에서 “括囊雜體，功在銓別”²⁾이라 했고, 鍾嶸은 〈詩品序〉에서 “庸音雜體，人各爲容”³⁾이라고 했는데, 모두 ‘雜體’라는 말을 언급했다. 그 중 유희이 賦·頌·詩歌를 비롯하여 雜體詩 계통의 文體 20여 종을 말한 것⁴⁾을 제외하고, 위에 거론한 것들은 題材와 風格에서 말하거나 曹丕의 《典論·論文》에서 말한 體氣(타고난 개성)⁵⁾와 같은 개념에 속했다. 남북조 시기의 ‘잡체’라는 말은 ‘체제’에 대한 이해보다 ‘풍격’ 측면에 더 많이 집중되었다.

잡체를 시의 체제 형식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唐代에 와서 비롯되었다. 吳兢은 《樂府古題要解》에 “藁砧今何在...” 등 유희적 성격이 짙은 시가 체제 26종을 언급했는데, 王睿가 《炙菽子雜錄》에서 이것을 雜體와 동일시하면서 ‘잡체’라는 말이 시 체제와 정식으로 연계되기 시작했다.⁶⁾ 후에 晚唐의 皮日休와 陸龜蒙의 唱和를 거치면서 체제 형식 즉, 詩體의 한 범주로 잡체시의 개념이 확립되었다. 宋 이후 清代에 이르기까지 각종 詩文選集이나 詩話에 이러한 기본 개념을 전제로 잡체시를 나열하였는데, 후대로 갈수록 세분화되고 번잡해져서⁷⁾ 여러 문헌에 있는 것을 합치면 그 종류가 200종 이상이라고 하니⁸⁾ 잡체시의 양식이 상당히 많고 광범위하

2) “다양한 체제를 포괄하되 그 효과는 잘 헤아리고 분별하는 데에 있다.”

3) “수준이 낮고 어수선한 작품들을 사람들은 각자의 모습으로 지어낸다.”

4) “至於三六雜言，則自出篇什，離合之發，則明於圖讖，回文所興，則道原爲始，聯句共韻，則栢梁餘製。”(劉勰，〈文心雕龍〉 권2，文淵閣《四庫全書》本)

5) “魏文典論稱，文以氣爲，主氣之清濁有體，不可力強而致”(賀復徵編，〈文章辨體彙選〉 권419，文淵閣《四庫全書》本)

6) 鄺化志，〈中國古代雜體詩通論〉，北京大學，2001，35쪽 참조.

7) 중국에 잡체시나 그 詩體名目を 수록한 대표적인 책이 6部 있는데，〈藝文類聚〉(歐陽詢)는 36종의 잡체시 70여 首를 수록했고，〈樂府古題要解〉(吳兢) 하긴 말에는 砧槁·連句·離合詩·回文詩 등 잡체시 개념에 부합한 시가 체제 26종이 기록되었으며，〈雜體詩并序〉(皮日休)에는 25종의 잡체시를 언급하였다. 〈滄浪詩話〉(嚴羽)에서는 ‘詩體’ 편에 15종의 잡체시를 나열하며 그 체제를 논했다. 〈宋文鑑〉(呂祖謙)에는 한 권에 걸쳐서 19종의 잡체시 작품을 選錄하였고，〈文體明辨〉(徐師曾)은 詩體 전문 서적으로 무려 88종의 잡체 양식을 나열하였다.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잡체시는 처음부터 하나의 문학 장르로 인식되었다기보다 편차명으로 인식되어 오랜 세월 명확한 의미를 지니지 않은 채 유행되다가 그 후 여러 詩文選集에 등장하게 되면서 詩體名으로 정립된 것이다. 잡체시에 대한 정의는 여러 전적에 詩體를 나열하거나 원류를 탐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을 뿐 그 정의를 정식으로 논하지는 않았다. 가령, 피일휴는 “古體로부터 律體에 이르렀고, 律體로부터 雜體에 이르러 시의 道가 여기서 다했다.”⁹⁾고 했고, 서사증은 잡체의 항목을 나열하면서 모두 詩體의 變이라 했다.¹⁰⁾ 吳訥은 잡체의 종류가 각기 다르지만 결국 詩體의 正이 아니라고 했다.¹¹⁾ 胡震亨은 詩經부터 雜體가 생겨나기까지의 과정을 말하고, 다양한 양식의 잡체를 시인과 연계하여 서술했다.¹²⁾

현재 《中國詩學大辭典》에서는 잡체시는 題材나 字形, 修辭 수법이나 句法 배열, 押韻 혹은 聲律 등의 방면에 기발한 구상이 돋보이는 일종의 變體라고 정의했고¹³⁾, 《漢語大辭典》에는 古典詩歌의 정식 체제 외의 각종 詩體로 문자유희의 성질을 띤다고 했다. 정리하면, ‘雜體’는 詩文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古詩·絕句·律詩·排律 등 正體 외에 잡다한 양식을 포괄하는 變體로 인식되었다. 즉, 非正宗의 위치에서 정식 체제 외에 字形, 句法, 聲律, 押韻 등에 독특한 규칙을 적용하여 다양한 體式으로 변화된 詩體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8) 鄺化志, 앞의 책, 38쪽 참조.

9) 皮日休, 〈雜體詩并序〉: “雜體遂生焉……由古至律, 由律至雜, 詩之道盡乎此也.” (《御定全唐詩》 권616, 文淵閣 《四庫全書》本)

10) “按詩有雜體, 一曰拗體, 二曰蜂腰……皆詩體之變也.” (徐師曾, 《文體明辨序說·雜體詩》, 人民大學出版社, 1998, 157쪽)

11) 吳訥, 〈文章辨體序題·雜體〉: “雜體之詩類……然其爲體雖各不同. 今總謂之雜者, 以其終非詩體之正焉.” (程敏政, 《明文衡》 권56, 文淵閣 《四庫全書》本)

12) “詩自風雅頌以降, 一變有離騷, 再變爲西漢五言詩, 三變有歌行雜體.”, “雜詩, 自孔融融合, 鮑照建除, 溫嶠迴文, 傅咸集句而下, 字謎、人名、鳥獸、花木, 摹倣日煩, 不可勝數.” (胡震亨, 《唐音癸籤》 권1, 권3, 文淵閣 《四庫全書》本)

13) 傅璇琮, 《中國詩學大辭典》, 浙江教育出版社, 1999, 1169쪽.

雜體詩는 정체시에 비해 수량은 적으면서 정체시보다 體式이 다양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 포괄하는 범위가 비교적 넓다. 그러나 학계에선 오랫동안 이것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이에 대한 연구가 간간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연구자마다 잡체시의 여러 체제에 대한 정의나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 본고는 잡체시의 體式 중 첫 번째로 嵌字 雜體詩의 의미와 종류, 감자 잡체시의 내용과 창작 특징, 발전 변화 등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嵌字 雜體詩의 의미

‘嵌’字의 사전적 의미는 ‘끼워 넣다, 새겨 넣다, 상감하다’의 뜻이다. 《修辭學發凡·鑲嵌》에 ‘嵌’자는 몇 개의 특정한 글자를 일부를 구절 속에 끼워 넣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사하기가 쉽지 않아 사용한 곳이 매우 적고, 詩나 詞, 歌曲, 小說에서 간혹 보인다고¹⁴⁾ 했다. 《漢語大詞典》에는 예전에 詩나 對句의 글귀를 지을 때, 몇 개의 특정 글자, 가령 人名, 地名, 기타 成語 등을 각 句의 서로 같은 위치에 차례대로 끼워 넣는 이것을 ‘嵌字格’이라 했다. 이 嵌字格을 嵌字體라고도 부르는데, 《雜體詩歌概論》에서는 嵌字格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을 세 가지로 말했다. 첫째, 새겨 넣는 글자가 몇 개의 특정한 글자여야 된다. 둘째, 그 새겨 넣는 특정 글자는 순서대로 嵌入한다. 셋째, 이 몇 개의 특정 글자는 다른 구의 동일한 위치에 감입해야 한다.¹⁵⁾

唐代的 岑參의 〈蜀葵花歌〉 일부를 보면,

昨日一花開,	어제 꽃 한 송이 피고,
今日一花開.	오늘도 꽃 한 송이 피었네.

14) 陳望道, 《修辭學發凡》, 上海教育出版社, 2001, 171쪽.

15) 饒少平, 《雜體詩歌概論》, 中華書局, 2009, 109쪽 참조.

今日花正好, 오늘 꽃은 이리도 아름다운데,
昨日花已老. 어제 꽃은 이미 시들어 버렸네.

라 했고, 또 陶淵明의 〈止酒〉 일부를 보면,

居止次城邑, 사는 집은 마을 가까운 곳에 그치나,
逍遙自閑止. 자유로이 거닐며 절로 한가함에 이르렀네.
坐止高蔭下, 높다란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쉬고,
步止華門里. 사림문 안에서 거닐다 멈추네.

라 했다. 앞에서 서술한 조건으로 보았을 때, 이 시는 嵌字格이 아니다. 여기에 있는 ‘花’와 ‘止’는 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사용한 復字體¹⁶⁾에 속한다. 게다가 매 구마다 ‘花’와 ‘止’가 규칙적인 배열을 이루거나 같은 위치에 있지도 않다. 남북조 시기 王融의 〈四色詠〉을 보자.

赤如城霞起, 성에 붉은 노을 일어나듯 붉고,
靑如松霧澈. 소나무 안개 걷힌 듯 푸르네.
黑如幽都雲, 도읍에 먹구름 짙 듯 검고,
白如瑤池雪. 瑤池 연못은 눈 오듯 희네.

이 시는 句마다 첫 번째 자리에 ‘赤·靑·黑·白’ 네 가지 색을 새겨 넣었다. 몇 개의 특정한 글자를 다른 구의 동일한 위치에 감입하여 嵌字格을 이루었다. 唐代 梅堯臣의 〈戲謝師直〉을 보면,

古錦裁詩句, 오래된 비단에 시구를 짓고,
班衣戲坐隅. 때때웃 입고 모퉁이에 앉아 노네.
木奴今正熟, 木奴의 과실은 지금 익어가고 있는데,
肯效陸郎無. 효성 지극한 陸郎을 본받고자 하나 없네.

16) 饒少平의 《雜體詩歌概論》에는 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復字體라 했으나, 王安琪의 〈唐代雜體詩研究〉에서는 嵌字類로 보았다.

라고 했다. 師直은 北宋의 謝景溫(1021~1098)으로 師直은 그의 字이다. 王安石의 新法을 지지했고, 京西淮南轉運使, 侍御史 등을 역임했다. 여기에 ‘班衣’는 班衣之喜¹⁷⁾에서 나온 말이고, ‘木奴’는 감귤 나무의 별칭으로 襄陽 李衡이 귤(柑子)나무 천 그루를 심어 거기서 나온 수확이 종에게서 받는 것과 같다는 고사에서 비롯된 것이고, 陸郎은 지극한 효성을 보여준 陸績¹⁸⁾을 가리킨다. 이 시는 1句부터 3句까지 두 번째 자리에 ‘錦·衣·奴’를 순서대로 새겨 넣었는데, 이 특정의 세 글자는 바로 謝景溫의 어렸을 때 이름이다. 따라서 이 시도 감자체 형식을 취한 雜體詩이다.

Ⅲ. 嵌字 雜體詩의 종류

雜體詩 중 글자나 단어를 구사하여 이루어진 詩體는 외형상 正體詩와 다르지 않다. 이런 시체는 특히 한자가 가진 독특한 字形과 字意를 조합하여 배열한 것인데, 嵌字 형태의 잡체시가 바로 여기에 속한다. 嵌字類 잡체의 대표적인 것으로 雜數詩와 雜名詩를 들 수 있다.¹⁹⁾

雜數詩는 숫자와 글자의 조합이 나타내는 단어나 문구를 시 속에 새겨 넣은 것이다. 徐師曾은 숫자로 제목을 이룬 시에 四時, 四氣, 四色, 五噫, 六憶, 六甲, 六府, 八音, 十索, 十離, 十二屬, 百年 등이 있다고 했다.²⁰⁾ 이 중에 五噫²¹⁾, 十索, 十離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세상에 전해진다.²²⁾ 현존하

17) 班衣(=斑衣)는 여러 빛깔의 옷. 중국 초나라 老萊子가 늙으신 부모님을 위하여 나이 일흔에 꼬까옷을 입고 재롱을 피웠다는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다.

18) 陸績이 6살 때 九江에서 袁術을 만났는데, 그 때 먹으라고 준 귤 세 개를 어머니를 위해 안 먹고 품에 간직했다는 고사에서 ‘陸績懷橘’이 나왔다.

19) 楊近水の 〈南朝嵌名詩研究〉(碩士學位論文, 2014)은 嵌名詩를 ‘X名詩’, ‘X詩’의 형태로 보고 이를 각각 嵌名詩集入, 嵌名詩覆首로 구분했다.

20) 徐師曾, 《文體明辨序說》, 人民大學出版社, 1998, 161쪽.

21) 漢代 梁鴻의 〈五噫歌〉: “陟彼此芒兮噫, 顧覽帝京兮噫, 宮室崔嵬兮噫, 民之劬勞兮噫, 遼遼未央兮噫.”는 詩題로 보면 감자 잡체시인 듯 보이나 사실 復字體이다.

는 잡수시의 상황을 시대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²³⁾

雜數詩	魏晉南北朝	唐	宋	元·明·清
四時詩	劉駿의 〈四時詩〉 王微의 〈四氣詩〉	雍裕之의 〈四氣〉		明代 李賢의 〈和陶詩四時〉 明末清初 陳子升의 〈四時詩〉
四色詩	王融의 〈四色詠〉 範雲의 〈擬古四色詩〉, 〈四色詩四首〉			
六府詩	孔魚의 〈和六府詩〉 沈炯의 〈六府詩〉	權德輿의 〈六府詩〉		
六甲詩	沈炯의 〈六甲詩〉			
六憶詩	沈約의 〈六憶詩四首〉			明代 黎遂球的 〈戲擬六憶詩〉6수 清代 柳是의 〈六憶詩〉2수
八音詩	沈炯의 〈八音詩〉	權德輿의 〈八音詩〉	孔平仲의 〈八音詩呈諸公一首〉, 〈八音詩六首〉	元代 林清의 〈八音詩〉 明代 鄧雲霄의 〈秋日郊居戲作八音詩〉
十二屬	沈炯의 〈十二屬詩〉		鄒浩의 〈效十二屬體〉 외에 9명의 시인에 의한 11首의 작품 있음	王世貞의 〈十二屬歸思〉, 邝露의 〈十二屬〉
百年詩	陸機의 〈百年歌十首〉			明代 黃省曾의 〈效陸士衡百年歌〉10수
五更詩	伏知道의 〈從軍五更轉五首〉			明代의 劉基, 于謙, 王世貞, 胡應麟의 〈從軍五更轉〉

22) 裴秋錦, 〈魏晉南北朝雜體詩研究〉, 河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11쪽 참조.

23) <https://sou-yun.com/index.aspx> 수록된 詩詞 807,921首 중 '詩題'로 검색함.

四時詩는 4계절을 시에 새겨 넣은 것이고, 四色詩는 4가지 색깔을 시에 새겨 넣은 것이다. 六府詩는 金·木·水·火·土·穀의 6가지 財用의 구성 요소를 시에 넣었다. 六甲詩는 천간의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를 끼워서 지은 시이고, 六憶詩는 매 首나 매 句의 처음에 憶來時·憶坐時·憶食時 등을 넣어서 지은 것이다. 八音詩는 여덟 가지 악기 소리를 새겨 넣은 것이고, 十二屬詩(=十二辰詩)는 12가지 띠를 새겨 넣었으며, 百年歌는 陸機에서 비롯된 組詩로 매 首의 첫 구에 ‘一十時’, ‘二十時’……‘百歲時’를 감입했다. 서사증이 말한 것 외에 五更詩 역시 組詩 형태로 각 首의 첫 구에 1更부터 5更까지 나누어 감입했다. 도표를 보면 잡수시의 작품 수는 매우 적은 편이고, 후대로 갈수록 일부의 詩體만 계속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王微의 〈四氣詩〉를 보면 다음과 같다.

蘅若首春華,	杜蘅과 杜若은 봄꽃 중 으뜸이요,
梧楸當夏翳.	오동나무와 가래나무는 여름 그늘 되어주네.
鳴笙起秋風,	笙황을 부니 가을바람 일어나고,
置酒飛冬雪.	술자리 마련하니 겨울 눈발 흩날리네.

이것은 4계절을 묘사한 四時詩와 같다. 이 시는 각 계절의 경물을 묘사 하면서 春, 夏, 秋, 冬을 차례대로 시에 새겨 넣어 감자체 형식을 취했다. 이렇듯 잡수시는 대체로 饒少平이 제시한 嵌字體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沈炯의 〈十二屬詩〉는 12띠를 매 句의 첫 번째 글자에 새겨 넣어 嵌字體를 이루지만, 宋代 朱熹의 〈讀十二辰詩卷掇其餘作此聊奉一笑〉²⁴⁾나 劉子翬의 〈少稷賦十二相屬詩戲贈〉, 趙端行的 〈少

24) 주희의 〈讀十二辰詩卷掇其餘作此聊奉一笑〉 심형의 〈十二屬詩〉
 夜聞空竈齧饑鼠, 曉駕羸牛耕廢圃, 鼠跡生塵案, 牛羊暮下來,
 時才虎圈聽豪誇, 舊業兔園嗟莽鹵, 虎嘯坐空穀, 兔月向窗開,
 君看蝮龍臥三冬, 頭角不與蛇爭雄, 龍隰遠青翠, 蛇柳近徘徊,
 毀車殺馬罷馳逐, 烹羊酤酒聊從容, 馬蘭方遠插, 羊負始春栽.

稷賦十二相屬詩戲贈〉 등은 詩題에 의해 12띠를 매 句마다 嵌入했으나 그 새겨 넣은 위치가 동일하지 않다. 즉, 嵌字 雜體詩에 속하지만 嵌入한 위치가 고정된 것이 아니어서 饒少平이 말한 嵌字格 조건에 일치하지는 않다.

嵌字類의 또 하나인 雜名詩는 같은 종류에 속하는 사물의 명칭을 시 속에 새겨 넣은 것이다. 그 종류는 人名, 鳥名, 星名, 針穴名, 龜兆名, 卦名 등 20여 종류가 있다. 摘명시의 수량 상황을 시대별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보았다.

雜名詩	魏晉南北朝	唐	宋	元·明·清
藥名詩	5	12	6425)	10
郡縣名詩	4	4	5	0
建除體	4	1	11	3
姓名詩	1	3	11	2
州名詩	1	1	8	1
數名詩(數詩)	3	1	5	2
星名詩	2	1	1	0
卦名詩	2	1	1	0
相名詩	1	0	1	0
道里名詩·屋名詩·獸名·鳥名詩·針穴名詩·龜兆名詩·歌曲名詩·樹名詩·草名詩·船名詩·車名詩·將軍名詩·宮殿名詩는 남북조 때 1수씩 전해지고, 그 후로 도태됨.				

위의 표를 보면, 雜名詩의 각종 체제는 남북조 때 나왔지만 당·송 이후로 더 이상 지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하면 꾸준히 계승된 것도 있다. 특히 藥名詩는 摘명시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할 만큼 唐代에 이어 宋代에서 매우 성행하여 18명의 시인이 60여 수의 약명시를 창작했다. 약명시

手種猴桃垂架綠, 養得鸚雞鳴角角, 猴栗羞芳果, 雞雛引清杯.
 客來犬吠催煮茶, 不用東家買豬肉, 狗其懷物外, 豬蠡宵悠哉.

25) 王偉, 〈唐宋藥名詩研究〉, 浙江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9쪽 참조.

를 많이 지은 요인은 中藥學의 발전 및 藥名의 풍부함도 있지만, 약초와 문인 생활의 밀접함 때문이었다. 옛날부터 문인들은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약을 복용했고, 산수에 은거할 때도 약초를 재배하여 사용하거나 팔기도 했다. 謝靈運, 杜甫, 柳宗元 등도 약명시와 관련성이 있다. 劉禹錫과 蘇軾, 沈括 등은 의약에 관한 책을 지을 정도로 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26) 陳亞는 의사인 외삼촌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약에 익숙했으므로 藥名詩를 100여 편이나 지었다. 27) 진아 이후 黃庭堅, 錢鏐 등도 약명시를 많이 지었고 孔平仲은 藥名詩 전문가였다. 이렇듯 당·송대에 문인의 생활과 의약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星名詩나 屋名詩, 鳥名詩, 獸名詩, 針穴名詩, 相名詩, 郡縣名, 卦名詩 등은 남북조에서 이미 嵌入의 위치나 수량에 고정된 형식을 벗어나 詩材에 따라 이름을 새겨 넣었다. 28) 姓名詩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이름(人名)이나 字, 號를 새겨 넣은 것인데, 南北朝 蕭繹의 〈姓名詩〉는 시 속에 古人의 이름을 嵌入한 것이 아니라 5言 10句 즉, 50글자 모두 姓氏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감자격을 이룬 것이 아니다. 《梁元帝集》에 있는 〈樹名詩〉, 〈將軍名詩〉, 〈船名詩〉, 〈宮殿名詩〉, 〈車名詩〉, 〈草名詩〉 등도 모두 이와 같다. 29) 姓名詩는 唐代의 權德輿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마지막 구절을 제외하고 대체로 對句로 짝을 이루어 고정된 위치에 古人의 이름을 배열하여 감자격을 이루었다. 30) 雜名詩 중에 建除體는 建·除·滿 등 12辰을 차례대로 넣었다. 31) 數名詩 또한 一·

26) 같은 논문, 12~13쪽 참조.

27) 진아의 약명시는 대부분 산일되어 현재까지 몇 수만 전해 내려온다.(祝尚書, 〈論宋人雜體詩〉, 四川大學學報, 第5期, 2001 참조)

28) 가령, 範雲의 〈奉和齊竟陵王郡縣名詩〉: “撫戈金城外, 解佩玉門中. 白馬騰遠雪, 蒼松壯寒風.....磬節疇盛德, 宣力照武功.”, 蕭繹의 〈針穴名詩〉: “金推五百裏, 日晚唱歸來. 車轉承光殿, 步上通天台.....” 張正見的 〈賦得山卦名詩〉: “蓬萊遁羽客, 岩穴轉蒙籠. 雲歸仙井暗, 霧解石橋通. 影帶臨峰鶴, 形隨雜雨風.....” 등

29) 豐家驊, 〈人名詩古今談〉, 《尋根》, 第1期, 2012 참조.

30) 〈古人名詩〉: “藩宣秉戎寄, 衡石崇勢位. 年紀信不留, 弛張良自愧.....”

二·三·四 등을 차례로 嵌入하여 같은 형태를 취했다. 수명시는 《文選》 권30에서 鮑照의 〈數名詩〉를 〈數詩〉라고 한 이후 후대의 작품은 數詩로 명명되었다.

지금까지 雜數詩와 雜名詩의 종류를 살펴보면서 嵌字 형태의 잡체시는 대부분 南北朝에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남북조 시기는 문학적 각성이 일어나 각종 文體論이 발전했다. 또 유미주의의 문풍으로 귀족들은 문학을 유희심리의 매개물로 인식하였고, 문인들은 새롭고 기이한 수사표현과 예술기교를 중시하여 잡체시는 이 시기에 가장 흥성했다. 감자 잡체시의 모든 體式도 이 시기에 나왔다. 唐代는 近體詩의 체제가 완성된 시기였다. 古體에서 律體로 넘어가는 初唐의 과도기를 겪은 후 盛唐에서 正體詩가 가장 번성했다. 반면에 잡체시는 많이 짓지도 않았는데³²⁾, 당시 문인들의 부정적인 태도도 한몫을 했다. 가령, 피일휴는 建除, 六甲, 十二屬, 百姓, 鳥名, 龜兆 등은 지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저속하여 짓지 않는다고 했다.³³⁾ 그래서 唐代의 嵌字 雜體詩는 그 수량이 매우 적었다. 宋代는 전성기였던 唐詩를 능가하기 위해 시 속에 내용의 다양함과 풍부함,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던 시기였으므로, 變體인 잡체시도 당연히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 시기의 감자 잡체시는 魏晉보다 다양하지는 않았으나 唐代보다는 수량이 많고, 특히 藥名詩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지어졌다.

雜數詩와 雜名詩는 외형상 5·7언 古詩나 律詩, 樂府 등 正體詩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그 표현수법에 있어서 특수한 규칙이 있었는데, 잡체시는 宋代의 十二屬詩를 제외하고 대체로 특정한 글자들을 순서대로 매

31) 建除 : 점성술가가 천문 12辰을 人事의 길흉화복에 배열해 놓은 것으로 建·除·滿·平·定·執·破·危·成·收·開·閉를 말한다. 가령, 方岳의 〈用筒齋建除體韻〉 : “**建**旗凜大將, **負**弩紛前驅, **除**此兩不能, **鋤**荷則有餘, **滿**畦老蕊韭, **貧**猶未饑虛, **平**生錯料事, **不**到齊王筭……”

32) 현존하는 唐代의 시는 대략 55,000여 수이고, 그 중에서 잡체시는 300여 수 정도 된다.(王安琪, 〈唐代雜體詩研究〉, 華僑大學 석사학위논문, 2014, 16쪽 참조)

33) 皮日休, 〈雜體詩并序〉 : “如**鮑**昭之**建除**, **沈**炯之**六甲**, **十二屬**, **梁**簡文之**卦名**, **陸**惠曉之**百姓**, **梁**元帝之**鳥名**……非不能也, 皆鄙而不爲.”(《御定全唐詩》 권616, 文淵閣 《四庫全書》本)

句나 매 聯의 동일한 위치에 嵌入하여 嵌字格(體)을 이루었다. 잡명시는 앞뒤의 순서가 있는 建除體나 數詩를 제외하고 고정된 위치를 벗어나 비교적 자유로이 嵌入되었다. 잡명시 중에 고정된 위치에 감입된 것도 있으나 대다수는 고정된 규칙을 탈피했는데, 잡명시의 詩材는 순서가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작가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가지고 와서 원하는 위치에 감입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雜數詩와 建除體, 數詩는 題材의 성질상 앞뒤 순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매 句나 매 聯의 동일한 위치에 순서대로 특정의 글자를 嵌入하여 嵌字體를 이루었다. 그러나 순서가 있는 제재와 고정된 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형태의 잡체는 짓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四時, 六甲, 六府, 百年 등은 이후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였고, 藥名, 郡縣州名, 姓名詩 등은 후대에도 변화를 가하여 계속 지어졌다.

IV. 嵌字 雜體詩의 내용

嵌字 雜體詩는 그 독특한 표현수법에서 정체시와 달랐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시인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내용면에 있어서 正體詩와 다르지 않아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자연 경물의 묘사나 紀行, 유람을 통해 시인의 감정을 토로하였다. 예를 들면, 範雲의 〈四色詩四首〉에는 靑, 赤, 白, 黑의 4글자를 매 首에 嵌入하면서 4가지 색채의 경물을 묘사하였다. 앞에서 거론한 王微의 〈四氣詩〉는 春, 夏, 秋, 冬을 각 구의 네 번째 글자에 감입하여 봄꽃, 여름그늘, 가을바람, 겨울눈발로 사계절의 광경을 묘사하여 빼어난 자연미의 특징을 살렸다. 四時나 四色 같은 작품은 4句의 짧은 편폭에 경물묘사가 이루어졌으나 嵌入된 시의 題材는 경물 묘사에 융합되어 하나가 되었다. 範雲의 〈州名詩〉 일부를 보자.

徐步遵廣隰,

천천히 넓은 습지 따라 걸으며,

冀以寫憂源.	걱정의 근원 털어버리길 바라네.
楊柳垂場圃,	버드나무는 채마밭에 드리워지고,
荊棘生庭門.	가시나무는 정원 문에서 자라나네.
交情久所見,	친분으로 만난 지 오래 되나
益友能孰存.	유익한 벗은 능히 누가 있는가?

여기에 嵌入한 徐, 廣, 隰, 冀, 楊, 柳, 荊, 交, 益은 모두 州 이름이다. 시인은 농사를 감독하기 위해 넓은 습지를 다니다가 버드나무와 가시나무의 풍경을 보고, 오랜 교분에도 불구하고 知己가 드문 세태의 야박함을 걱정했다. 宋代 孔平仲의 〈新作西庵將及春景戲成兩詩請李思中節推同賦〉 중 其二를 보면,

昨葉何搖落,	어제 나뭇잎은 어찌나 흔들리며 떨어지던지,
今逢淑景天.	오늘은 맑고 아름다운 풍경 마주하게 되었네.
山椒紅杏火,	산꼭대기 붉은 살구는 불타는 듯하고,
岩石綠苔煙.	바위의 푸른 이끼는 연기 끼듯 퍼져있네.
爐火沉香爐,	화롯불엔 침향 타다 남은 찌꺼기 있고,
琴絲續斷弦.	거문고 줄 끊어질 듯 계속 이어지네.
忍冬已徹骨,	저울을 견뎌내느라 한기는 이미 뼈까지 스며드는데,
衰白及長年.	쇠약해지고 머리 세어 늙어버렸네.

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昨葉何, 景天, 山椒, 綠苔 등의 藥名을 고정된 위치에 넣지 않고 교묘하게 嵌入한 藥名詩이다. 작가는 西庵에서의 봄날 경치를 묘사하면서 늙어가는 자신의 신세를 묘사하였다.

두 번째, 仙界의 광경이나 仙人의 신기한 생활을 묘사하여 신선의 삶을 동경하거나 불로장생을 추구했다. 蕭繹(梁元帝)의 〈相名詩〉³⁴⁾를 보면, 관상에 관한 용어 仙庫, 人中, 山林, 陂池 등을 감입하였다. 처음 두 구는 선인이 옥 지팡이를 팔고 山林으로 돌아오는 내용이고, 중간의 네 구는 유상

34) “仙人賣玉杖, 乘鹿去山林. 浮杯度池曲, 摩鏡往河陰. 井內書銅板, 竈裏化黃金. 妻搖五明扇, 妾弄一弦琴. 暫遊忽千里, 中天那可尋.”

곡수의 술잔과 구리거울을 묘사하면서 우물 내부를 동판으로 새기고 부엌을 황금으로 변화시킨 신선의 기묘한 술법을 묘사했다. 7·8句는 부채를 부치고 거문고를 연주하는 처첩들과 사족 문인의 일상생활 모습을 묘사하면서 동시에 五明扇, 一弦琴으로 신선의 특징을 드러냈다. 마지막 두 구는 하늘을 나는 술법과 선인이 逍遙하는 묘사를 통해 자유로운 생활에 대한 동경을 드러냈다. 沈約의 〈奉和齊竟陵王藥名詩〉도 詩句 속에 丹草, 朱翹, 荆實, 玉屑, 黃符 등의 藥名을 은연중에 嵌入하면서 전설상 곤륜산 위에 있다는 玉泉을 바라보고 주사를 입힌 붉은 병(丹瓶)을 쪼개며, 용수초를 먹인 말을 몰고, 옥 분말(玉屑)을 먹는 가운데 황색 符籙을 취하여 長壽를 구하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³⁵⁾ 張正見의 〈賦得山卦名詩〉³⁶⁾는 운무로 뒤덮인 봉래산에서 선사를 찾는 일을 묘사하였으니, 또한 신선 같은 삶을 살고자하는 뜻이 있다.

세 번째, 세속을 떠나 술과 詩文을 즐기는 은자의 삶을 묘사하기도 했다. 孔平仲의 〈八音詩呈諸公〉을 보면 다음과 같다.

金罍美酒門十千, 石榴花開窗戶前. 絲棼萬事何足言,	황금 술잔에 맛좋은 술 가득하고, 석류화는 창문 앞에 피었네. 만사가 엉킨 실타래처럼 분란하니 어찌 말할 만하겠나?
竹溪六逸方醉眠, ³⁷⁾ 匏瓜繫馬雖不久, ³⁸⁾ 土風堪美人皆賢.	竹溪의 여섯 현인들 모두 취하여 잠드네. 포주박이 매달려있구나! 비록 오래 되진 않았으나, 풍토가 아주 좋아 사람들도 모두 현인이네.

35) “丹草秀朱翹,……玉泉亟周流, 雲華乍明滅,……荆實剖丹瓶, 龍菊汗奔血, 照握乃夜光, 盈車非玉屑,……黃符若可挹, 長生永昭皙.”

36) “蓬萊遁羽客, 岩穴轉蒙籠, 雲歸仙井暗, 霧解石橋通, 影帶臨峰鶴, 形隨雜雨風, 尋師不失路, 鹹欲馭飛鴻.”

37) 竹溪六逸 : 당나라 天寶 연간에 활동했던 李白, 孔巢父, 韓準, 裴政, 張叔明, 陶沔을 말하는데, 이들은 山東省 徂徠山 아래의 竹溪에서 酒友로서 한때 술에 탐닉하며 세상을 잊고 살았다.

38) 匏瓜繫(=匏瓜空繫) : 재능이 있으나 발휘할 수 없음을 이르는 말이다.

革易睽散心惘然,
木在高山魚逐泉。

개혁이 어긋나 뿔뿔이 흩어지고 마음은 망연자실,
나무는 高山에 있고 물고기는 샘물을 따르네.

이것은 여덟 가지 악기 소리인 ‘金·石·絲·竹·匏·土·革·木’의 八音を 각 句의 첫 번째에 嵌入하면서 唐代의 이백, 공소보, 장숙명 등 竹溪六逸이 속세를 떠나 은거한 것을 묘사했다. 북송 원우시기에 활동했던 공평중은 新·舊黨의 대립 속에 여러 번 좌천되었으므로 하수상한 시절에 은사의 생활을 동경하여 여기에 자신의 심정을 투영한 것이다.

네 번째, 평생의 행적을 묘사한 것도 있는데, 한때의 행적이 아니므로 편폭이 비교적 길다. 남북조 시인 鮑照나 範雲, 당대의 權德輿, 송대의 黃庭堅, 陳與義 등의 建除詩가 여기에 속한다. 전체시는 매 聯의 첫 번째에 12辰을 嵌入했기 때문에 시 한 편은 모두 24句가 된다. 이밖에 範雲의 〈奉和齊竟陵王郡縣名詩〉, 虞羲의 〈數名詩〉, 沈約의 〈和陸慧曉百姓名詩〉 등도 이런 유형에 속하여 비교적 편폭이 길다.

다섯 번째, 부녀자의 생활을 묘사하여 원망이나 수심을 드러낸 것도 있는데, 이런 시는 아리따운 정서에 비교적 유약한 시풍을 띠어 남북조 때 유행하던 宮體詩風을 닮았다. 蕭綱의 〈藥名詩〉를 보면 다음과 같다.

朝風動春草,
落日照橫塘。
重臺蕩子妾,
黃昏獨自傷。
燭映合歡被,
帷飄蘇合香。
石墨聊書賦,
鉛華試作妝。
徒令惜萱草,
蔓延滿空房。

아침 바람에 봄풀 흔들리고,
저녁놀은 저수지 비추네.
겹겹이 둘러싸인 누대 위 탕자의 아내는,
황혼녘에 홀로 시름겨워하네.
등불은 合歡 이불 비추고,
휘장 안엔 蘇合향 날리네.
석묵으로 잠시 賦를 짓고,
연백분으로 단장해보네.
부질없게도 근심 잊게 해준다는 원추리를 아껴,
빈 방 가득 퍼져있네.

이 시는 해 질 무렵부터 밤에 이르기까지 시름겨워하는 탕자 아내의 모

습을 묘사한 것이다. 시 속의 화자는 부부가 덮고 잔다는 합환 이불과 소합향을 바라보고 자신의 독수공방을 탄식하여 賦를 짓고 화장하면서 근심이 해소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결국 방 안 가득 깔린 萱草도 근심을 해소시킬 수 없다. 여기에 있는 藥名은 단어 배열이 묘하게 對仗을 이루면서 황혼녘에 남편을 그리는 아내의 비애를 情景交融으로 담아내었다. 이밖에 남북조 시기 蕭繹의 〈樹名詩〉, 〈縣名詩〉, 〈船名詩〉, 〈龜兆名詩〉, 〈歌曲名詩〉 및 沈炯의 〈八音詩〉 등도 여성의 아름다운 자태와 염정을 묘사하였다.

지금까지 상술한 것 외에도 감자 잡체시에는 詠物이나 전쟁에 관한 일, 연회를 베풀거나 배를 띄워 유람하는 내용이 있다. 가령, 梁 簡文帝의 〈卦名詩〉³⁹⁾는 꽃이 만발한 유원지에서 벗들과 주연을 베풀어 노는 과정을 눈에 보듯이 그려내면서 매 詩句마다 比, 復, 離, 旅, 豐, 鼎 등 卦名을 嵌入했다. 蕭繹의 〈宮殿名詩〉, 〈鳥名詩〉 등도 모두 이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리고 내용이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정황이 동시에 들어 있는 것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孔魚의 〈和六府詩〉⁴⁰⁾는 평생의 행적과 더불어 농사짓고 심신수양을 하는 은자의 삶을 묘사했고, 蕭繹의 〈獸名詩〉⁴¹⁾는 군대 생활과 연회를 다루었다. 결과적으로 감자 잡체시에서 언급한 내용과 감정은 일반적인 시와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V. 嵌字 雜體詩의 창작 특징

嵌字 雜體詩는 때때로 ‘문자유회’나 ‘형식주의’나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 39) “櫛比園花滿，徑復水流新。離禽時入袖，旅穀乍依蘋。豐壺要上客，鶴鼎命嘉賓。車由泰夏闔，馬散咸陽塵。蓮舟雖未濟，分密已同人。”
- 40) “金門朱軌躅，吾子盛簪裾。木舌無時用，萍流復在余。水鄉訪松石，蘭澤侶樵漁。火洲方可至，地肺即爲居。土牛自知止，真心達毀譽。穀稼有時隲，乘植望白榆。”
- 41) “豹韜求秘術，虎略選良臣。水涉黃牛浦，山過白馬津。摧鋒上狐塞，畫像入麒麟。果下新花落，桃枝芳樹春。王孫及公子，熊席復橫陳。”

이는 그 作法에서 언어유희의 성격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감자 잡체시의 창작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감자 잡체시에 嵌入된 단어는 네 가지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嵌入 글자에 成語나 典故를 배합하였다. 심형의 〈八音詩〉에 있는 ‘金屋’은 ‘金屋藏嬌’⁴²⁾ 전고가 내포되어 있고, “石頭足年少”의 ‘石頭’는 지금의 南京인 石頭城을 말한다. 포조의 〈數詩〉 “六樂陳廣坐……七盤起長袖……八珍盈彫組”에서 ‘六樂’은 雲門大卷, 大咸, 大韶, 大夏, 大濩, 大武라는 여섯 가지 고대 음악과 춤을 말하고, ‘七盤’은 초나라의 무용이고, 八珍은 맛있는 요리를 의미한다. 주로 雜數詩를 지을 때 이러한 방식을 많이 취했다.

둘째, 詩句 속에 嵌入할 단어를 직접 넣지 않고 그 단어를 은연중에 내포한 방식이 있다. 〈龜兆名詩〉의 “土膏春氣生, 倡女協春情. 魚遊連北水, 鶴作遼東鳴.”⁴³⁾을 보면, 卦名을 직접 감입하지 않고 卦象의 의미를 해석했다. 1句는 즉, 坤卦를 의미한다. 《周易註》에 곤괘는 “地道也, 妻道也, ……天地變化, 草木蕃”이라 했으니, 결국 1句는 봄이 와서 땅의 精氣 생동하니 초목이 자성하게 됨을 묘사하였다. 4句는 漸卦를 의미하는데, 이 괘의 九三 효사는 기러기가 물으로 점차 나아감이니 지아버가 가면 돌아오지 않음을(鴻漸於陸, 夫征不復) 의미한다. 象傳에 지아버가 가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은 무리를 떠나 추하다(夫征不復, 離群醜)고 했다. 이 詩句는 漢代 丁令威가 학이 되어 遼東으로 돌아오는 故事를 겸하였으므로 ‘離群醜’는 신선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지아버가 멀리 나가 돌아오지 못하니 아마도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추측하여 표현한 것이다.⁴⁴⁾ 〈車名詩〉, 〈歌曲名詩〉 등도 모두 이런 유형에 속한다. 직접 감입하지 않고

42) 金屋藏嬌: 한 무제 劉徹이 태자시절이었을 때, 阿嬌와 결혼하게 되면 금으로 만든 집에 고이 모셔놓겠다고 말한 데서 나왔다.

43) “땅 기름져 봄기운 생동하고, 倡女는 春情을 좇네. 물고기는 연이어 북쪽 물까지 헤엄치고, 고니는 소리 내며 요동으로 돌아왔네.”

44) 徐元 選注, 《趣味詩三百首》, 上海古籍出版社, 1993, 152쪽 참조.

시 구절에 함축된 방식은 감자 잡체시를 확대한 점은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嵌字體는 아니다. 게다가 典故까지 더해지면 시의 眞意를 단번에 알 수 없어 남북조 이후에 이런 방식은 계승되지 못하고 도태되었다.

셋째, 嵌入된 단어가 본래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왕용의 〈藥名詩〉 “石蠶終未繭, 垣衣不可裳”⁴⁵⁾ 중 ‘石蠶’과 ‘垣衣’는 약명 본래의 뜻으로 쓰였다. 심약의 〈奉和竟陵王郡縣名詩〉 “既豫平臺集, 復齒南皮宴。一窺長安城, 羞言杜陵掾。”⁴⁶⁾ 중 ‘平·臺·南·皮·長·安·杜·陵’은 모두 郡縣 이름이다. ‘平臺集’은 梁孝王의 일을 말하고, ‘南皮宴’은 曹植의 이야기이다. 양효왕의 ‘平臺’는 고대의 누대 이름이지 각각의 平과 臺라는 郡縣 본래의 뜻으로 감입된 것이 아니다. 나머지 세 개 郡縣은 모두 본래의 뜻으로 감입되었다. 〈數名詩〉, 〈四時詩〉, 〈四色詩〉 등도 거의 본래의 뜻으로 쓰였는데, 이런 방식은 감자 잡체시에서 지향하는 바가 결코 아니었으나 이를 완전히 피하기가 쉽지 않았다.

넷째, 글자의 同音を 이용한 諧音 雙關과 多義를 이용한 語義 雙關 방식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落日照橫塘”의 ‘橫塘’이 해음 쌍관인데, 표면적으로는 ‘저수지’를 의미하나 암암리에 약명 ‘橫唐’을 감입한 것이다. 감자 잡체시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사실 어의 쌍관인데, 예를 들어 〈藥名詩〉 “重臺蕩子妾, 黃昏獨自傷” 중 ‘重臺’와 ‘黃昏’이 여기에 속한다. 이것은 藥名이기도 하지만, 각각 ‘겹겹이 둘러싸인 누대’와 ‘해질 무렵’의 뜻을 가진 쌍관어이다. 바로 감자 잡체시가 지향하는 “字則正用, 意須假借(글자는 정식으로 사용하고 뜻은 반드시 가차해야 한다.)”의 원칙이 지켜진 경우인데, 시인들은 이렇게 지어진 시가 공교하다고 여겼다.⁴⁷⁾

공교한 작품을 지으려면 시인의 재주와 박학다식이 요구되므로 감자 잡

45) “石蠶은 결국 고치가 아니고, 垣衣는 치마가 될 수 없네.”

46) “이미 平臺에서 모여 즐기고, 다시 南皮에서 연회를 벌이네. 長安의 城을 몰래 살펴보고, 杜陵에서의 도움을 부끄럽게 말하네.”

47) “漫叟詩話云, 嘗見近世作藥名詩或未工. 要當字則正用, 意須假借, 如, ‘日仄栢陰斜’是也.”(胡仔, 《苕溪漁隱叢話》上, 世界書局, 民國65[1976]. 185쪽)

체시는 기본적으로 ‘以學問爲詩’의 성질을 띤다. 人名, 地名, 藥名 같은 시의 제재는 생활 속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책이나 학문을 통해 얻는 경우가 많아 발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나 문인들은 한자가 가진 字形과 字義의 특징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그들의 언어 유희적 감각과 재치를 감자 잡체시에 드러냈다. 그러나 作法의 특성이 유희라 하더라도 좋은 잡체시를 짓기 위해서는 “변화를 궁리하여 운용하되 각각 情理나 事理에 맞게 지어야(幹運曲折, 使各中理)”⁴⁸⁾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 《荅溪漁隱叢話》에서 말한 것처럼 嵌入한 글자가 자연스럽고 적절하여 일반적인 시와 다름없이 미묘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四海無遠志, 一溪甘遂心”⁴⁹⁾의 ‘遠志’, ‘甘遂’처럼⁵⁰⁾ 약명이 감입된 줄도 모르게 시가 자연스럽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감자 잡체시를 지을 때, ‘字則正用, 意須假借’의 원칙을 지켜야 하지만, 변화를 강구하여 운용하더라도 전체 詩意가 ‘中理’하면 무방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때로는 假借가 아닌 본래의 뜻을 시에 넣거나 정식 글자가 아닌 同音を 가차하여 시에 새기는 것도 허용된 것이다. 즉, 시의 기본적인 韻字와 仄仄을 비롯하여 시 내용의 자연스런 전개를 위하여 경우에 따라 嵌入 글자의 원활한 운용과 변화가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후세에 더욱 발전하게 된 체제가 藥名詩였는데, 唐·宋代에 의학지식이 널리 보급된 시대상황도 한몫을 했다. 특히 唐詩에 비해 宋詩는 변화를 추구하던 시대여서 變의 속성을 지닌 잡체시가 더욱 성행한 것이다. 시의 체제도 남북조 시기는 對句의 형태로 고정된 형식을 많이 취했으나, 후대로 갈수록 대구를 고수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운용되었다.

48) 《宋稗類鈔·談諧第四十二》 권25, 文淵閣 《四庫全書》本.

49) “드넓은 바닷물은 원대한 뜻이 없으나, 한줄기 시냇물은 기꺼이 만족하네.”

50) “禽言詩當如藥名詩. 用其名字隱入詩句中, 造語穩貼, 無異尋常詩, 乃爲造微入妙. 如藥名詩云, ‘四海無遠志, 一溪甘遂心’, ‘遠志’, ‘甘遂’ 二藥名也.”

VI. 嵌字 雜體詩의 발전 변화

감자 잡체는 비단 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宋詞나 元曲 등에도 운용되었다. 가령, 蘇軾의 詞 〈減字木蘭花〉⁵¹⁾가 나온 배경이 재미있다. 당시 그는 杭州通判으로 있다가 서울로 가던 중 潤州의 知州 許仲途의 연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때 자리에 있던 관기 정용은 妓籍에서 벗어나기를 청하고 고영 또한 이런 생활을 벗어나 결혼하기를 원하였다. 소식은 그녀들이 적어낸 공문 뒤에 즉시 이 填詞를 쓰면서 句마다 첫 글자에 순서대로 鄭·容·落·籍·高·瑩·從·良을 감입하였는데, 첫 글자들을 모두 연결하면 “鄭容落籍, 高瑩從良”이 된다. 이 시는 암암리에 민생을 대변했을 뿐만 아니라 嵌入이 매우 자연스럽고 민첩한 재치가 돋보여 문자적 기교를 초월한 뛰어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明代 廣東 사람 蒙詔는 嘉靖 연간에 진사가 되어 右僉都禦史 등을 역임한 유능한 관리였는데, 벼슬하기 전에는 학문도 평범하고 불품없었기에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다. 장가가던 날 아내의 백부가 몽조에게 ‘河南村狗’ 4字를 藏頭體로 하여 지으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시이다.

河漢浮槎到五羊,	은하수 뗏목이 廣州(五羊)에 다다르고,
南風吹送桂花香.	남쪽 바람은 계수나무 꽃향기를 내보내네.
村人多少來爭看,	촌놈 몇 명이 다가와 앞다투어보고,
狗吠仙姬會阮郎.	선녀와 완랑의 만남에 개가 짖네.

아내의 백부는 조카사위를 은근히 ‘하천 남쪽에서 온 개’로 경멸하였는데, 몽조는 즉석에서 ‘河·南·村·狗’ 네 글자를 순서대로 감입하여 시를 지어서 좌중을 놀라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후 그 자신도 자극을 받아 더

51) “鄭莊好客, 容我尊前先墮幘, 落筆生風, 籍籍聲名不負公, 高山白早, 瑩骨水膚那解老, 從此南徐, 良夜清風月滿湖.”

육 분발하여 名儒가 되었다.

위의 두 예문을 통해 嵌入된 글자는 후대로 갈수록 학문이나 책이 아닌 시인의 생활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 속의 嵌字는 이전의 감자 잡채시처럼 藥名, 地名, 姓名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해졌다. 이전의 시는 제목을 보고 대략 창작 의도를 추측할 수 있었으나 후대의 시는 제목에 명시하지 않으면 嵌字를 알기가 쉽지 않았으므로 ‘字則正用’의 원칙에 따라 감자를 정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諧音 현상 등을 이용한 방식은 잘 쓰지 않게 되었다. 일례로 근현대 교육가이자 몽고족 시인인 克興額(1889~1950)은 反滿抗日的 시를 많이 지어 모진 고문 끝에 실명되었다. 그는 어린 딸을 위해 감자 잡채시를 녹음하여 가훈으로 삼도록 했는데, 바로 “不毛之地, 功澤均沾, 遠東寧謐, 民主新建, 衽席同登, 億萬騰歡, 永歲奠基, 慶頌無限.”⁵²⁾이다. 극흥액은 만년에 중국이 民主新建을 보게 된 것을 기뻐하며 이 시의 각 구 두 번째 글자를 딸에게 읽게 했는데, 그 글자를 모두 연결하면 ‘毛澤東主席萬歲頌’이 된다. 당시 사회상황과 그의 지향점을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다. 또 산문가이자 만화가, 음악 교육가로 유명한 豐子愷(1898~1975)는 文華이 일어났을 당시 충격을 받아 오직 막내아들과 서신으로 雜體詩詞를 주고받으면서 적적함을 달래곤 했다. 그 중 하나가 1969년에 쓴 “看花攜酒去, 攜來朱門家, 動即到君家, 幾日喜春晴, 冷落清秋節, 可汗大點兵, 莫得同車歸, 死者長已矣, 玄鳥殊安適, 客行雖云樂.”⁵³⁾이다. 이 시는 독특하게 제1구는 첫 번째 글자에 嵌入하고, 제2구는 두 번째 글자에, 제3구는 세 번째에 감입했다. 이 글자들을 연결하면 ‘看來到春節, 可得長安樂’이 된다. 작가는 비록 자신이 검열을

52) “불모의 땅에 공격과 은택 고루 누리게 하고 멀리 동쪽까지 평안하게 하여 민주주의를 새롭게 건설하였네. 안락한 자리 함께 올라 만인이 모두 기뻐하였으니, 영원한 창시자여 무한히 경축 드리는 바이네.”

53) “술 들고 꽃 보러 가, 술 들고 높은 벼슬아치 집에 왔네. 출발하자 그대 집에 달아, 며칠 동안 맑게 갠 봄날로 즐거웠네. 쓸쓸하고 맑은 가을날, 나라에서 군사를 모집했다네. 함께 수레타고 돌아온 이 없으니, 죽은 자는 영원히 끝이네. 제비가 특히 안정되고 편안하다네. 나그네로 떠도는 것이 낙이라고는 하나.”

받고 있으나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여겼으므로, 설날이 되어 장안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다고 아들에게 감자채 방식으로 자신의 심정을 알린 것이다. 여기에서 쓰인 嵌字는 위치가 순차적으로 바뀌는 방식을 취했는데, 사실 이런 방식은 唐代 權德輿의 〈卦名詩〉⁵⁴⁾에서 운용된 것을 계승한 셈이다. 이렇듯 오늘날 감자 잡체시는 이전의 유희적 作法을 계승하면서 嵌字의 소재는 다양해져서 이전 시기처럼 무의미한 단어나열이 아니라 작가의 뜻은 은연중에 드러내는 또 하나의 문구나 문장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졌다. 심지어 광고도 감자 방식을 운용했다. 예를 들어 “縱天南地北, 任風狂浪大. 我心系遠方, 行大道中正.”⁵⁵⁾을 보면, 각 구의 첫 번째 감자를 모두 연결하면 ‘縱任我行’이고, 각 구의 끝 감자를 연결하면 ‘北大方正’이 된다. 즉 원대한 이상을 가진 北大方正기업⁵⁶⁾을 감자의 형태로 소개한 시이다. 시적 운미뿐만 아니라 현대화되고 첨단과학기술을 가진 기업 이미지를 부각시킨 점에서 감자 잡체시 광고의 문화적 역량을 느낄 수 있다.

VII. 나가는 말

지금까지 嵌字 雜體詩의 의미와 종류, 그 내용과 창작 특징 및 발전 변화를 살펴보았다. 감자 잡체시는 넓은 의미에서는 몇 개의 특정한 글자를 일부러 시의 각 句나 매 聯에 嵌入하는 것을 뜻한다. 좁은 의미에서, 감입한 몇 글자는 순서대로 다른 구의 동일한 위치에 새겨 넣어 嵌字格(體)을 이룬다.

감자 잡체시의 대표적인 雜數詩와 雜名詩는 대부분 南北朝 때에 출현했

54) “節變忽驚春, 臨風騁望頻. 支頤倦書幌, 步履整山巾. 時鳥漸成曲, 雜芳隨意新. 曙霞連觀闕, 綺陌麗威秦. 天地今交泰, 雲雷背邁屯. 中孚諒可樂, 書此示家人.”

55) “은 세계를 중흥하여, 세찬 바람과 큰 파도를 만나도, 내 마음은 미래를 향하고, 행동은 中正의 큰 道를 행하네.”

56) 北大方正 : 컴퓨터와 통신, 디지털을 대표로 하는 IT기업. 베이징대학 연구소에서 출발하여 그 연구 성과를 비즈니스에 연결한 대표적 학관 기업이다.

다. 잡수시는 대체로 좁은 의미의 嵌字格을 이루었으나 짓기가 쉽지 않아 후대로 갈수록 도태되었고, 후대에 일부 지어진 작품도 嵌入한 위치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를 보였다. 잡명시는 建除體나 數名詩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체제는 작가의 필요에 따라 詩材를 원하는 위치에 새겨 넣기가 용이했으므로 고정된 위치만 고수하지 않고, 對句를 이루거나 비교적 자유로이 嵌入되었고, 잡수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지어졌다. 그 중 藥名詩는 唐·宋代에 문인의 의약적 지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압도적으로 많이 지어졌다.

감자 잡체시의 내용은 자연 경물을 묘사하거나 유람을 통해 시인의 감정을 토로하기도 하고, 詠物이나 전쟁에 관한 일을 묘사하거나 세속을 떠나 술과 詩文을 즐기는 은자의 삶을 묘사하기도 했다. 잡체시의 형식은 매우 독특하지만 경물을 묘사하거나 시인의 뜻과 정서를 표현하거나 광범위하게 사회생활을 반영하는 것은 일반적인 正體詩와 다르지 않았다.

감자 잡체시의 창작은 作法에서 언어유희의 성격이 두드러졌다. 嵌入 방식에서, 감입 글자에 成語나 典故를 배합하거나 감입할 단어를 직접 넣지 않고 그 단어를 내포한 방식, 감입한 글자 본래의 뜻을 시에 넣거나 정식 글자가 아닌 諧音을 이용하거나 多義를 이용한 雙關 등을 사용했다.

후대에 嵌字 雜體의 영역은 詩뿐만 아니라 詞나 曲, 광고 등에도 운용되었고, 시에 새겨 넣은 글자도 藥名, 地名, 姓名 등 학문이나 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생활에서 얻은 것이 많았다. 즉, 이전의 ‘字則正用, 意須假借’의 유희적 作法을 계승하면서도 嵌字의 제재는 다양해졌다. 뿐만 아니라 嵌字가 단어나열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작가의 뜻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또 하나의 문구나 문장을 이루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嵌字를 하더라도 詩意와 그 전개가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曲折中理’의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 감자 잡체시는 비록 문자유희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정신을 즐겁게 하거나 지혜를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

< 참고문헌 >

1. 陳望道, 《修辭學發凡》, 上海教育出版社, 2001.
2. 豐家驊, 〈人名詩古今談〉, 《尋根》, 第1期, 2012.
3. 傅璇琮, 《中國詩學大辭典》, 浙江教育出版社, 1999.
4. 胡子, 《苕溪漁隱叢話》, 世界書局, 民國65[1976].
5. 李鵬, 〈趙翼眼中的雜體詩: 詩歌裏的創體〉, 《文史知識》, 第10期, 2003.
6. 裴秋錦, 〈魏晉南北朝雜體詩研究〉, 河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1.
7. 饒少平, 《雜體詩歌概論》, 中華書局, 2009.
8. 王安琪, 〈唐代雜體詩研究〉, 華僑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
9. 王偉, 〈唐宋樂名詩研究〉, 浙江大學 碩士學位論文, 2010.
10. 徐元, 《趣味詩三百首》, 上海古籍出版社, 1993.
11. 鄒化志, 《中國古代雜體詩通論》, 北京大學, 2001.
12. 楊近水, 〈南朝嵌名詩研究〉, 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4.
13. 嚴羽 著·郭紹虞 校釋, 《滄浪詩話校釋》, 人民文學出版社, 1998.
14. 祝尚書, 〈論宋人雜體詩〉, 四川大學學報, 第5期, 2001.

< Abstract >

This thesis puts its purpose in examining the meaning and types of Qianzi Zatishi(miscellaneous poems with engraved subjects), the conten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uch poetry, along with its developmental changes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Qianzi Zatishi generally represents that a few particular letters are engraved on purpose into each line or verse in a poem. That is to say, letters are engraved in the same place of another line or verse in order, forming the embedded style of writing.

Zashushi(miscellaneous poems with engraved numbers) and Zamingshi (miscellaneous poems with engraved names) representing Qianzi Zatisi mostly emerged during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 On account that it was difficult to create Zashushi poems, though these kinds of poems were generally made up of an engraved style, they gradually died out as time went by to the next generation. Zamingshi poems were comparatively more created than other poems because it was easier to get the subject matters of these poems. In particular, Chinese herb poems, which are related to the medical knowledge of literary men, were overwhelmingly dominant in Tang and Song Dynasty. The content of Qianzi Zatisi was not different from that of ordinary poetry, but the characteristics of amusement in such poetry were distinctive in its writing techniques.

In later times, the area of Qianzi Zatisi was expanded into lyrics or advertisements. Furthermore, engraved letters were not confined to the academic studies or books. Rather, these letters were obtained on a basis of poets' daily lives. However, the grand principle that the development of poetry and its poetic meaning should be natural still remains unchanging until today.

Key Words : 감자잡체시(Qianzi Zatisi), 잡수시(Zashushi), 잡명시(Zaming-shi), 문자유희(Amusement of writing letters), 약명시(Chinese Herbs Poetry)

